

袁枚의 시인으로서의 창작행위와 자아인식*

— 《小倉山房詩集》을 중심으로 —

홍혜진**

<目次>

I. 서론	IV. 편집과 출판 참여
II. 시가 창작의 의미	V. 시인으로서의 일상생활 묘사
III. 시가 창작과정에 대한 표현	VI. 결론

I. 서론

청대에 활동했던 袁枚(1716~1797)는 관료 출신의 시인이다. 그는 진사에 급제한 후 한림원에 들어갔으나 오래 있지 못하고 지방 지현으로 발령되었다. 8년간 지방을 전전하다가 兩江總督 尹繼善(1695~1771)의 도움으로 高郵州刺史에 추천되었으나 떨어져 실의하고 江寧知縣을 그만두었다. 그러다 생계 때문에 사임 후 4년이 되는 건륭 17년(1752)에 다시 陝西知縣을 맡았지만 바로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완전히 관직에서 물러났다. 원래는 관직에 복귀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직접적으로는 하급 관료의 생활이 매우 고됐고¹⁾ 또 隨園에서 생활 하는 동안 정신적 해방감을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5736).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小倉山房詩集》내 권3의 〈署中感興〉, 〈捕蝗曲〉, 〈徵漕嘆〉, 권4의 〈府中趨〉, 〈俗吏篇〉 등에 나타나 있다.

느끼며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전직 관료의 신분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문장을 짓거나²⁾ 사적으로는 蘇州의 棣華書屋, 復園, 綉谷園, 塔影園, 淮安의 晚甘園 등지에서 연회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시문을 주고받았는데 진사 동기를 비롯한 정치인에서부터 顏李학과 程廷祚, 國手 范世勳, 명의 薛雪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작품 창작에도 열의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양한 작품과 수량의 증가이다. 그 가운데 시는 江寧知縣을 그만 둔 시점부터 작품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 유행하던 지괴류 소설에도 관심을 가져 건륭 17년(1752)부터는 관련 작품들을 수집하여 《子不語》의 초고를 만들기 시작했다.³⁾ 뿐만 아니라 원매의 시학 주장이 담긴 내용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그 예로 《隨園詩話》가 있는데 이 책은 만년에 편찬되긴 했으나 집필은 건륭 2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⁴⁾ 문장에서는 건륭 26년(1761) 46세에 沈德潛을 비판하며 性情의 중요성을 강조한 〈答沈大宗伯論詩書〉(《소창산방문집》 권17)가 지어졌고, 施蘭垞와 논쟁을 벌이며 당송 구분의 주장을 반박한 〈答施蘭垞論詩書〉(《소창산방문집》 권17)도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 또 건륭 32년(1767) 52세에는 〈續詩品〉(권20) 32수를 지어 시가 창작시 요구되는 중요 원칙과 창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자신의 창작 경험에서 비롯된 소산으로 《소창산방문집》내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원매 시학을 집대성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건륭 24년(1759)에는 자신의 일대기와 정체성에 대해 묘사한 작품을 지었는데 바로 〈子才子歌示莊念農〉(권15)이다. 전체 84구로 이루어진 이 시는 원매의 대표적인 장편 자전시이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시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개인적 취향, 삶

2) 건륭 14년에 兩江總督 黃廷桂를 위해, 건륭 16년에는 고종이 남순하였을 때는 명을 받고 〈御祭卞忠貞公墓紀恩碑記〉 등의 글을 지었다. 鄭幸 저, 《袁枚年譜新編》, 上海: 上海世紀出版集團, 2011, 196쪽, 214쪽.

3) 鄭幸 저, 같은 책, 223쪽.

4) 王標 著, 《省市知識分子的社會形態》,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8, 234쪽.

의 지향점, 역대 경전과 고인의 작품에 대한 견해, 시문 창작의 역량, 시가의 성취, 詩風의 특징 등을 밝히며 자신의 존재적 의미 특히 시인으로서의 의미를 깨닫는 자기 인식과 자기 신념이 깊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외에 〈所好軒記〉(《小倉山房文集》 권29)가 있는데 수원이라는 소우주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모두 원매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탐색하며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小倉山房詩集》 37권과 《補遺》 2권에 수록된 약 4500수를 바탕으로 원매가 시가 창작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스스로를 시인으로 의식하며 보여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집은 21세부터 82세까지 60여 년 동안에 지은 것이다. 그중 권1~4는 강령지현시기까지 근 10년 간 지은 것인데 약 288수 밖에 되지 않아 사직 이후로 원매가 시가 창작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원매가 주장한 핵심 시론의 출현 역시 사직 이후 진행된 창작행위를 거쳐 얻게 된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지어진 작품 가운데 직접적으로 시가 창작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원매의 삶에 있어서 시가 창작의 의미, 시가 창작의 실천 과정, 창작 뿐만 아니라 편집과 출판에까지 참여했던 정황 및 시인으로서 보냈던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매가 자신을 시인으로 인식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시가 창작의 의미

중국 고대 사회에서 문인들에게 시문은 지식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

5) 홍혜진, <《小倉山房詩集》에 나타난 自傳的 통찰 특징 연구>, 《외국학연구》, 제67집, 2024, 129-132쪽.

야 하는 기본 소양이며 정치입문을 위한 수단이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저마다 시문의 성취를 높여 사회적 교화를 극대화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권에서 물러난 전직 관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도 여전히 공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문 창작의 성과를 보여줘야 했다. 문단의 병폐를 척결하는 것 또한 시대의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재야의 문인들은 시문 창작이나 문단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원매도 같은 생각이었다. 다음의 문장은 원매가 사직하였을 때 무책임하다는 陶觀察의 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⁶⁾ 원매는 정치인답게 ‘報國’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연히 정치적 공적을 쌓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文章’을 짓는 것도 결코 그 역할이 정치보다 못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업으로 삼고자 한 이유를 밝혔다.

“일찍이 공적을 세우는 것은 나라에 보답하는 일이고 文章 역시 나라에 보답하는 일인데 문장을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 방대하고 아름다우며 조리 있고 사리에 통달한 작품을 지어 고금에서 뛰어난 이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모 조대의 문장에는 아무개 씨가 있다고 일컫게 만들면 이 또한 필시 나라의 빛이 될 것입니다.”⁷⁾

이처럼 문장의 가치를 자각한 글로는 일찍이 曹丕 《典論·論文》의 “문장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공업이고 사라지지 않는 대단한 일이다.

- 6) 도관찰의 이름은 상세하지 않다. 그는 원매가 사직을 결심한 이유가 한림원에서 밀려나 지방 知縣직으로 떨어지고 계속 승진을 못하게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원매는 그에게 〈答陶觀察問乞病書〉, 〈再答陶觀察書〉를 써서 관료 조직의 문제점과 하급 관료의 생활이 노예처럼 고단했음을 토로하며 반박하였다.
- 7) “嘗謂功業報國, 文章亦報國, 而文章之著作爲尤難. …… 使有鴻麗辨達之作, 踔絕古今, 使人稱某朝文有某氏, 則亦未必非邦家之光.” 〈再答陶觀察書〉, 《小倉山房文集》 권16.

(蓋文章, 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라는 구절이 있었다. 원매의 견해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원매는 ‘功業’과 ‘文章’을 비교하고 후자가 더 어렵다고 보았다. 정치적 업무보다 창작행위의 고충이 훨씬 크다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난 작품을 지어 후대까지 알려진다면 그 역시 나라를 빛낸 업적에 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원매는 사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 문장에 힘쓰고자 하였고 저술 활동을 벌이는 내내 자신의 이름을 후대까지 남기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다음의 <六十四首>其四(권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百年再算無多日,	백 년을 다시 세어보니 많이 남지 않았는데
一代能傳有幾人.	한 시대에 몇 이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從此光陰倍珍重,	지금부터는 시간을 배로 더 귀하게 여기고
高歌樂府惜餘春.	<악부>를 소리 높여 부르며 남은 봄을 아끼겠노라.

이 시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순이 된 해에 지은 것이다. 살아갈 날을 계산해보니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듯하였다. 한 시대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 원매는 자신이 그 명단에 속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뜻을 이루고자 유한한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며 창작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담아낸 것이다.

이처럼 원매에게 있어서 시의 의미는 정치와 동일한 ‘報國’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報國’의 궁극적인 목적은 ‘傳名’에 있었다. 원매는 역대 유명 작품을 뛰어넘는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떨치면 사후에까지 이름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시를 ‘傳名’이란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한 의도 아래 원매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창작에 전념하여 약 4500편이란 대량의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원매가 창작행위를 통해 대외적으로 ‘功名’을 실현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이고 실리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즉 창작행위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경제 수입원이었다. 청대에는 경제 성장이 크게 이뤄져 각종 상업에서부터 유통, 출판에 이르기까지 소득을 창출할 기회들이 많았다. 이러한 환경은 상층지식인들이 황실로부터 외면받았을 때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다만 상층지식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은 세상의 눈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인간의 자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매는 이러한 태도와는 결을 달리하였다. 고매한 인격 수양보다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원매는 스스로 가난한 생활에 대해 고통스러워했으며 가장으로서 운택한 삶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였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가정 경제의 주된 수입원이었고⁸⁾ 이외에 소득 창출의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 능력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그가 남긴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출판업계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수험서, 소설, 시화를 손꼽을 수 있는데 바로 《袁太史稿》, 《子不語》, 《隨園詩話》가 이에 해당하였다.

시를 놓고 보면 내용상 창작 활동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마상여의 호색, 또 范蠡의 재산 경영을 잘 이해하였네.(解好長卿色, 亦營陶朱財.)”(《秋夜雜詩》其五(권10))라는 구절을 통해 원매가 경제활동을 긍정하고 이에 대해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시구에서 “이 문자에 의지하여, 저작으로 생활하였네.(賴此文字間, 著作爲生涯.)”(《偶然作十三首》其一(권13))라고 한 것을 보면 원매에게 경제활동은 결국 창작행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 〈其八(권13)〉에서도 창작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오직 이 문자의 일에만, 곳곳이 앉아 조석으로 힘썼네.(惟茲文字業, 兀兀尚朝暮.)”라고 한 부분이다. 이것으로 짐작하건대 원매에게 창작행위는 숙명과 같은 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결하는 방법

8) 원매가 임종할 무렵에는 농지가 많이 늘어나 124畝나 되었다고 한다. 鄭幸저, 같은 책, 218쪽.

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창작행위로만 접근하기에는 당장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원매에게 시가 창작행위는 ‘報國’, ‘傳名’,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관직의 빈자리를 ‘文字業’으로 대신하고 삶을 책임지는 방식의 하나로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층지식인으로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대외적 명분을 획득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삶의 복지를 추구하며 점차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것이다.

Ⅲ. 시가 창작과정에 대한 표현

원매는 《소창산방시집》에서 시인으로 사는 삶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가 시에 대해 인식하고 논의한 작품으로 <증남촌의 논시에 답하다(答曾南邨論詩)>(권 4)가 있다.

提筆先須問性情,	시를 쓸 때는 먼저 반드시 성정을 묻고
風裁休划宋元明.	풍격과 체재로 송, 원, 명을 나누는 것은 그만두라.
八音分裂宮商韻,	여덟 악기로 된 음악도 궁상의 운으로 갈라졌고
一代都存雅頌聲.	한 시대에는 모두 雅와 訟의 소리가 있었다네.
秋月氣清千處好,	가을 달빛에 기운이 청량하여 곳곳마다 좋은데
化工才大百花生.	조물주의 재주가 대단하여 수많은 꽃이 피어났네.
憐予官退詩偏進,	가련하네, 관직이 외방으로 물러나 시에만 정진하는데
雖不能軍好論兵.	지휘는 못 해도 병법 논하길 좋아한다네.

원매는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1구의 ‘성정을 물어본다(問性情)’를 제시한 것이다. ‘성정’은 원매 시학의 핵심으로 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 개성, 천성을 뜻한다.

모든 시는 ‘나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아 탐색을 통한 자아 발견은 결국 개성적인 작품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제5~6구는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가을 기운임에도 ‘化工’의 재주가 대단하여 수많은 꽃을 피우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化工’은 시인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官退詩進”이라 하여 관직에서는 물러나고 시인의 길로 나아가 정진하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였다. 당시 원매는 한림원에서 물러난 후 여러 지현을 전전하다가 江寧知縣을 맡고 있었다. 중앙요직에서 배제된 懷才不遇의 허무한 심경을 시로써 채웠던 것이다. 마지막의 ‘兵’은 ‘병법’인데 여기서 ‘詩法’을 비유하는 것으로 창작행위에 빠지다 보니 자연히 ‘시법’에도 관심이 커졌음을 나타내며 제1~2구를 다시 상기시켰다.

이 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매는 ‘論詩’를 즐겨하였는데 따로 체계적인 시법서를 지은 것은 아니었다. 생각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기록해두었는데 이런 메모식 기록이 《수원시화》⁹⁾에 많이 나타났다. 반면 《소창산방시집》에서는 〈속시품〉이 대표적이다. 모두 32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원매가 직접 창작하는 동안 ‘苦心’¹⁰⁾하며 깨달은 내용들을 매우 세밀하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놓았는데 일종의 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¹¹⁾ 본고에서는 개별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기보다 큰 틀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다.¹²⁾ 즉, 작시에 임하는 시인의 자세, 시인

9) 본고는 《소창산방시집》에 나타나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隨園詩話》에 대한 개별적인 특징은 신재환 《〈隨園詩話〉 연구》(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0)를 참고.

10) 원매는 〈續詩品〉의 서문에서 〈二十四詩品〉의 속작을 짓게 된 이유를 밝히며 “안타깝게도 그저 오묘한 경지만 나타내고 고심함은 쓰지 않았다.(而惜其祇標妙境, 未寫苦心)”라고 하였다.

11) 차주환 《중국시론》(서울: 서울대출판부, 1990), 최일의 《원매의 시와 시론》(서울: 신성, 2003), 〈袁枚〈續詩品〉의 창작원리론 고찰〉(《中國文學》, 제20호, 1992), 홍혜진 《18세기 강남 도시 문예장과 원매의 글쓰기》(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藝林品彙》 연구〉(《중국학보》, 제97집, 2021), 〈袁枚의 시가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 고찰〉(《동아시아고대회》, 제52집, 2018).

의 학습 태도, 시인의 기본적인 역량, 시가의 지향점, 시의 기세와 풍격, 시의 형식적인 요인, 시어의 선택, 시의 수정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시인마다 창작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나 정도가 각기 다를 것이나 원매는 최대한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창작의 기준은 바로 <著我>편과 <神悟>편에서 “결국 고인과 같아진다면, 어디서 나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竟似古人, 何處著我)”, “오직 성정만 나타낼 뿐이지, 문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네.(但見性情, 不著文字)”라고 한 것이다. 이 32편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점검포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은 결국 다른 사람도 만족시켜야 했다. 다음의 <본 것을 적다(書所見六首)>其五(권14)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심적 부담을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시의 완성도, 시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분명한 기준은 제시하였는데 바로 표절 금지였다.

賦詩似爲政, 시를 짓는 것은 정치와도 같으니
焉得人人悅? 어찌 사람마다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12) <속시품>의 각 내용을 단편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명	내용	편명	내용	편명	내용
崇意	내용 중시	結響	음악성	藏拙	단점 제거
精思	시상	取徑	변화	神悟	영감
博習	학습	知難	고충	卽景	포착
相題	시제	葆眞	진실성	勇改	수정
選材	전고	安雅	우아미	著我	개성 표출
用筆	시상 전개	空行	기세	戒偏	숭상 경계
理氣	기세	固存	안정감	割忍	수정
布格	詩格	辨微	섬세함	求友	조언
擇韻	용운	澄滓	정제미	拔萃	수정
尚識	지식	齋心	성실	減迹	수정
振采	문채	矜嚴	엄정		

但須有我在, 단지 내게 있어야 할 것은
不可事剽竊. 표절을 일삼지 않아야 하는 것이네.

원매는 표절에 대한 경계를 매우 여러 번 강조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병폐가 매우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매는 그 이유가 잘못된 독서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보통 시가 창작의 학습 방법으로 역대 고인들의 작품을 읽는 독서를 선행하였는데 그러한 중에 자연스럽게 따라 쓰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독서(讀書)〉(권6)에서는 ‘面異’와 ‘心異’의 시어를 써서 모방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매우 간단명료하게 나타내었다.

.....
面異斯爲人, 얼굴이 달라야 곧 사람이 되고
心異斯爲文. 마음이 달라야 곧 문장이 되는 것이네.
.....

이러한 모방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작품을 위해 원매는 끊임없이 수정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를 고치다(改詩)〉(권15)에서는 “시를 고치는 것은 짓는 것보다 어려워, 고생에 정해진 기준도 없네.(改詩難於作, 辛苦無定程.)”라고 하며 수정의 고단함을 하소연했다. 또 다음의 〈흥이 나다(遣興)〉(권32)에서는 이 과정을 여인에 비유하여 묘사하였다. 완전히 갖추어진 모습이 아니면 절대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여인처럼 원매 또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대단했음을 나타내었다.

愛好由來落筆難, 뛰어난 것을 좋아해 시를 쓰기가 어렵고
一詩千改始心安. 시 한 수에 천 번은 고쳐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네.
阿婆還是初笄女, 노파여도 여전히 막 비녀를 꽂은 여인처럼
頭未梳成不許看. 머리를 빗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았다네.

각고의 시간 때문이었을까 원매는 시를 그만 쓰겠다는 생각도 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시를 그만두는 것은 술을 끊는 것과 같아, 누차 끊었다가 또 누차 시작하네.(戒詩如戒酒, 屢戒復屢開.)”(〈시를 끊다(戒詩)〉(권32))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애주가가 술을 끊지 못하듯 자신 역시 그와 같았음을 말하며 타고난 시인임을 자처하였다. 수없이 많은 작품을 짓고 고치고 하는 동안 원매는 더욱 숙련된 시인으로 거듭났을 것이다. 그러나 노시인은 점차 그 작시의 횟수를 줄이며 다음의 〈늙어서(老來)〉(권25)에서 말하듯 ‘天然’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老來不肯落言筌,	나이 들어 언어의 통발에 빠지고 싶지 않다 보니
一月詩才一兩篇。	한 달에 시를 겨우 한두 편 지을 뿐이었네.
我不覺詩詩覺我,	내가 시를 찾지 않는데 시가 나를 찾으니
始知天籟本天然。	뛰어난 작품은 자연스러움에 근원함을 비로소 알겠네.

제1구의 ‘落言筌’은 《莊子·外物》편에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다(得魚而忘筌)”에서 처음 쓰였다. 이후 《滄浪詩話·詩辨》에서 “이치의 길에 빠지지 않고, 언어의 통발에 떨어지지 않는다.(所謂不涉理路, 不落言筌者上也.)”에도 보이는데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뛰어넘는 ‘言外之興’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마지막 구의 ‘天籟’도 《莊子·齊物》에 나오는 말인데¹³⁾ 본래는 대자연의 소리를 나타내나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정취를 지닌 뛰어난 시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지어진 시는 결국 자연스럽게 지어진 작품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건륭 32년 52세에 〈속시품〉을 지으며 창작의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던 원매는 그 후로 10년이 지난 뒤에는 또 한 번 일변하여 ‘天然’의 자연스러운 풍취를 지닌 작품을 짓고자 갈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3) “너는 인되는 들었어도 지되는 듣지 못했고, 지되는 들었어도 천되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女聞人籟而未聞地籟, 女聞地籟而未聞天籟夫)” 이민수 역, 《莊子·內篇》, 서울: 혜원출판사, 1992, 35쪽, 원문참고.

IV. 편집과 출판 참여

원매는 작시에 몰두하고 작품들이 많이 모이면 이를 책으로 엮어내었다. 저서의 출판은 ‘傳名’을 실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문인의 저서는 사후 자손이나 제자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원매는 후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생전에 자신의 저서들을 거의 모두 출판하였다. 《소창산방시집》에서 원매가 직접 편집이나 출판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편집하다(編得)〉(권11)이 있다. 이 시는 건륭 20년(1755) 40세에 지은 것으로 사임 이후 작시에 매진하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손수 작품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보인다.

其一

編得新詩十卷成，
自招黃鳥聽歌聲。
臨池照影私心語，
不信吾無後世名。

새로 지은 시를 엮으니 10권이 되어
절로 피꼬리를 불러 노래를 들었네.
못에 이르러 그림자를 비추며 사심을 말하니
설마 내가 후세에 명성이 없을 수 있겠는가?

其二

不負堂堂白日過，
卷中一字一編摩。
及時行樂春猶少，
惜墨如金集已多。

내버리지 않고 기운차게 시간을 보내며
두루마리 속 한 자까지 모두 엮었네.
급시행락을 봄인데도 줄이고
금처럼 먹을 아껴 모아두니 벌써 많다.

〈編得〉은 모두 두 편으로 이뤄졌다. 其一에서 사심이라 말한 ‘後世名’은 결국 작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또 其二에서는 많은 시간을 작시에 들이며 매 작품을 신중하게 지었음을 말하였다.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물 앞에서 매우 뿌듯해하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 60세 때에는 〈전집을 편집하고 절구 네 수를 짓다(全集編成自題四絕句)〉

(권24)를 썼는데 여기서 전집은 《소창산방시문집》을 가리킨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원매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가시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는 그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었다.

其三

七齡上學解吟哦,	일곱 살에 서당에 들어가 시를 짓게 된 후
垂老燈窓墨尚磨.	늙도록 등불 밝힌 창 앞에서 여태 먹을 갈았네.
除却神仙與富貴,	신선과 부귀만 빼면
此生原不算蹉跎.	이 삶도 본래 허송세월한 것은 아니었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작시에 공을 들이며 살았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신선’과 ‘부귀’이나 작시만큼은 남다른 성과를 이뤘으니 ‘不算蹉跎’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시집은 그에게 삶의 목적이고 의미 그 자체였다. 그리고 노쇠하여 병중에 있는 때에는 큰 위로처가 되기도 하였다. <병중에 책을 볼 수 없어 《소창산방시문집》만 읽다(病中不能看書惟讀小倉山房詩集而已)>(권37)에서는 기력이 쇠해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던 때에 자신의 시집을 읽으며 삶의 동력으로 삼았음을 나타내었다.

病中何事最相宜,	병중에 무슨 일이 가장 마땅하겠는가
惟有攤書力尚支.	책을 펴는 것만큼은 힘이 그래도 버틸만하네.
悅耳偶聽窗外鳥,	귀가 즐거운 건 우연히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서고
賞心只看自家詩.	마음이 기쁜 건 그저 내 시를 보고 있어서라네.

.....

사실 원매의 출판이 이것으로 그쳤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후로 더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문제는 출판시장에 나온 번각본들이었다. 번각본은 일종의 복제본으로 원매가 직접 판각하고 인쇄한 모본을 보고 그대로 다시 판각하여 인쇄한 것이다. 일종의 盜版 또는 海賊版이라 불리는 것이다.

다음의 작품은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내가 간행한 《소창산방척독》과 《수원시화》가 세 성에서 번각되었는데 근래 듣자하니 《소창산방전집》을 또 번각한 자가 있다하여 재미삼아 한 수 짓다(余所梓尺牘詩話被三省翻板, 近聞倉山全集亦有翻者, 戲作一首)>(권33)라고 제목에 자세히 풀어 썼다.

自梓詩文信未眞,	내가 인쇄한 시문이 실로 진짜가 아니니
麻沙翻板各家新.	麻沙本을 번각하여 저마다 출판업자가 새롭게 했네.
左思悔作三都賦,	좌시는 삼도부 지은 것을 후회했겠네
枉是便宜賣紙人.	부질없이 종이 파는 사람에게 이득을 보게 해줬으니.

이 시는 건륭 56년(1791) 76세에 지어진 것이다. 그 사이 원매의 저작은 《소창산방시문집》뿐만 아니라 《소창산방척독》과 《수원시화》까지도 세상에 널리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상황은 다음의 《수원시화》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내가 《隨園詩話》와 《小倉山房尺牘》 두 종류를 刻印했는데 사람들에게 번각되어 일시에 성행하니 판매자들이 돈을 벌게 된 이유였다. 근래 듣자 하니 《隨園全集》을 번각한 자가 또 있다고 하였다. 유희상이 구강에서 마음을 전해오며 ‘근래 시집의 가격이 봄날 조수처럼 불어나, 봄이 깊어질수록 나날이 높아지네.’라고 하였다.”¹⁴⁾

위의 문장을 통해 보건대 원매의 저작들은 출판시장에서 모두 호황을 이루고 있었던 듯하다. 구매자가 많아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즉시 완판되었고 이렇다 보니 가격도 매우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시에서는 左思의 <三都賦>¹⁵⁾에 비유하여 출판업자에게 득이 되는 일을

14) “余刻《詩話》《尺牘》二種, 被人翻板, 以一時風行, 賣者得價故也. 近聞又有翻刻《隨園全集》者. 劉霞裳在九江寄懷云, ‘年來詩價春潮長, 一日春深一日高.’” 《隨園詩話·補遺》 권3-16.

만들어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 원매가 출판으로 거둬들이는 소득도 꽤나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수원시화》도 큰 몫을 했으리라 생각된다.¹⁶⁾ 《수원시화》는 상당 부분을 ‘채시’가 차지하고 있다. 그 기본 취지는 뛰어난 작품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원매는 전국을 대상으로¹⁷⁾ 시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시를 《수원시화》에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원매가 나서서 시를 수집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¹⁸⁾ 이는 유명인의 시화집에 자신의 시를 수록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때도 때문이 성사되었을 것이다. 또한 원매는 자신의 저서 외에도 청탁을 받거나 또는 세상에 전해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문집을 보면 편집, 판각 해주었다.

이처럼 원매는 작시뿐만 아니라 저서의 편집과 출판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작품을 탐독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다음의 〈시를 고르다(選詩)〉(32권)에서는 좋은 시를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15) “사공 장화가 〈삼도부〉를 보고 감탄하며 ‘班固와 張衡의 부류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읽은 자들로 하여금 다 읽고 나면 여운이 생기고 읽은 지 오래돼도 더 새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리하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투어 옮겨 써서 낙양은 그 바람에 종잇값이 비싸졌다.(司空張華見而歎曰, 班張之流也, 使讀之者, 盡而有餘, 久而更新. 於是, 豪貴之家, 競相傳寫, 洛陽爲之紙貴.)” 房玄齡 외 찬, 《晉書·列傳62·文苑·左思》, 北京: 中華書局, 1987, 2377쪽.

16) 王廣鵬, 〈袁枚의 出版經營活動略說〉, 文教資料, 2020, vol.858, 55쪽.

17) “근래 13省 시인의 佳句는 내가 대체로 시화에 채록하였다. 감숙성 한 곳만 길이 멀고 지인이 없어 수집하지 못했다. 무신년 봄에 갑자기 강령 전사관 왕백애 字는 광성이 찾아와 오솔 4수를 주었다. …… ‘어릴 때 吳信辰 진사에게 시를 배웠습니다.’라고 하였다. …… 오씨는 이름이 鎮이고 감숙성 임조 사람이었다.(近日十三省詩人佳句, 余多采錄詩話中. 惟甘肅一省, 路遠朋稀, 無從搜輯. 戊申春, 忽江寧典史王栢崖光晟見訪, 貽五律四首, …… 云‘幼講詩于吳信辰進士.’ …… 吳名鎮, 甘肅臨洮人.)” 《隨園詩話》 권16-19.

18) “내가 《수원시화》를 지은 후로 사망에서 시를 가지고 와서 수록해 달라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自余作《詩話》, 而四方以詩來求入者, 如雲而至.)” 《隨園詩話·補遺》 권5-38.

消夏閑無事,	더위를 피하며 한가롭고 일이 없어
將人詩卷看.	다른 사람들의 시집을 보았네.
選詩如選色,	시를 고르는 것은 여인을 고르는 것과 같아
總覺動心難.	늘 느끼나니 마음에 들기 힘들다는 것을.

원매는 ‘선시’를 ‘選色’에 비유하며 맘에 드는 여인을 만나기 어렵듯 시도 마찬가지로 하였고. 원매는 소주 등지로 연회를 즐기거나 또는 첩으로 삼을 만한 여인을 구하러 다니곤 했다. <스스로 비웃으며(自嘲)>(권16)에서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이름나 또 첩을 들였다네.(無子爲名又賣春)”라고 했는데 63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던 원매는 오랜 기간 첩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했고 마땅한 이가 없어 낙심하기도 하였다.¹⁹⁾ ‘選色’은 아마도 이런 배경을 담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원매는 시가 창작 외에도 편집, 출판, 선시에 힘을 기울이며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사람들은 출판된 시문집을 통해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외에 직접 친필을 구하러 오는 이들도 있었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원매는 제목에서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풀어놓았다. <나는 어릴 적 서예를 익히지 않아 매번 저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써달라 부탁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뜻밖에 80세가 되어 눈도 어둡고 손도 떨리는데 내게 와서 친필을 구하는 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내가 이 뜻을 알고 재미 삼아 절구 한 수를 지었다(余幼不習書, 每有著作倩人代作, 海內所知也. 不料年登八十眼昏手戰, 而來索親筆者如雲. 我知其意, 戲吟一絕)>(권34)라고 하였다.

詩人八十本來希,	시인 중에 여든 살은 본래 드문데
揮翰朝朝墨染衣,	붓을 쓰느라 매일같이 먹물이 옷에 뻘네.
越是塗鴉人越要,	까마귀처럼 칠할수록 사람들이 더 달라하니
怕他來歲此鴉飛.	그들이 무서워 내년엔 이 까마귀가 날아가 버리겠네.

19) 鄭幸 저, 같은 책, 180쪽.

80세 고령이 된 노시인이 친필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손에서 붓을 내려놓지 못함을 하소연하였다. 제3구의 ‘塗鴉’은 원매의 졸렬한 글씨를 비유한 것이다. 본래 글씨 쓰는 재주가 없기도 하거니와 늙어서 손이 떨려 마치 더덕더덕 새까맣게 칠한 것이 까마귀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즐지어 찾아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이 까마귀가 날아가 버리겠네(此鴉飛)’라고 우스개 섞인 푸념을 한 것이다. 아마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유명 시인의 유작을 간직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듯하다. 이 시를 통해 원매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친필 역시 출판만큼 원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당시 원매의 명성이 대단하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V. 시인으로서의 일상생활 묘사

원매의 일상은 작시 활동과 매우 밀접하였다. 평범하여 진부하게 느껴지고 정체되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일상은 작시 활동이 개입하면서 생산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일상은 ‘잠재성의 공간’²⁰⁾이 되어 가치 실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따라서 일상에 대한 부각은 자기 존재의 증명을 의미하였다. 원매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루 일과의 반복적인 행위에서부터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까지 모두 있는 그대로 시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²¹⁾ 이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순간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20) 김지영은 일상이란 지배 역사에서 추방되고 상실되었던 것이 출몰하는 공간으로 보았는데 김기봉이 “독자적 의미를 구현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 규정한 것을 수용하였다. 김지영, 《매혹의 근대, 일상의 모험》, 파주: 돌베개, 2016, 25쪽.

21) “오랫동안 비가 내려 손님도 오지 않고, 빈 마루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네. 한가로이 앉아있자니 너무 무료하여, 춘난 일사귀를 모두 세었다네.(雨久客不來, 空堂飛一蝶. 閑坐太無聊, 數盡春蘭葉.) <閑坐>(권16).

나타내고자 하였다. 원매는 특히 사임 이후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주목하였다. 대부분이 작시와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표현도 늘어나게 되었다. 작시를 업으로 삼아 매일같이 창작에 몰두하였던 원매는 좋은 시구를 쓰기 위해 매일같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시를 여인처럼 좋아하였다.(枚平生愛詩如愛色)”²²⁾라고 했듯이 시는 애정의 대상이었다. 또한 다음의 〈우연히 짓다(偶然作十三首)〉其三(권13)를 보면 독서 역시 그러하였다. 여인으로 비유한 시와 독서는 모두 시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행복의 원천이었고 원매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

得句忽然忘,	시구를 얻었다가 갑자기 잊으면
逐之如追逃.	도둑을 추격하듯 뒤쫓네.
見書如見色,	책을 볼 때면 미인을 만난 듯
未近已心動.	채 가까이 가기도 전에 벌써 심장이 뛰다네.

...

원매는 대체로 서재나 서고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생활하였다. 이 애착 공간에 대한 작품으로는 〈수원 24개의 노래(隨園二十四咏)〉(권15)의 〈서고(書倉)〉(其四)가 있는데 藏書樓를 마련하여 수많은 책을 소장하게 된 정황에 대해 묘사하였다. 서가에 가득한 책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幾時君盡讀?’라고 묻는 듯하다는 마지막 구가 인상적인 시이다. 가난 때문에 마음대로 책을 사지 못했던 시절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원매는 관직에 나아간 후 많은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를 소장하기 위해 서고도 크게 늘렸던 것이다.

聚書如聚穀,	책을 모으는 것은 곡식을 모으는 것과 같은데
倉儲苦不足.	서고에 쌓아보니 부족하여 괴로웠네.

22) 袁枚 저, 夏勇 주석, 《小倉山房尺牘詳注》 권8, 〈答彭蕢園先生〉,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20, 427쪽.

爲藏萬古人,	수많은 고인을 소장하고자
多造三間屋.	세 칸 집을 더 지었네.
書間藏書者,	책이 장서자에게 묻노니
幾時君盡讀	그대는 언제 다 읽으려는가?

또한 〈隨園二十四咏〉의 〈소면재(小眠齋)〉(其四)에서는 서재에서 보낸 소소한 일상의 순간을 담아내었다. 고요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독서도 지루해졌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뺨엔 온통 책 자국이나 그 사이 혹시나 날아왔을 나비를 떠올리며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秋齋號小眠,	가을 서재를 小眠이라 부르나니
空廊無響屐.	빈 복도에는 여인의 나막신 소리도 없네.
讀倦偶枕書,	독서가 시들해져 우연히 책을 베었더니
書痕印滿頰.	책 자국이 온 뺨에 찍혔네.
不知窓外花,	창밖 꽃으로
飛過幾蝴蝶.	몇 마리 나비가 날아왔다 왔는지 모르겠네.

위의 시에서 보듯이 원매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변화에 주의하여 찰나의 사건이나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여기에 굳더 더기 없는 평이한 시어를 써서 담백하면서도 섬세함을 더하였다. 이런 특징은 〈즉흥적으로 짓다(卽事)〉(권11)에서도 발견된다.

黃梅將去雨聲稀,	누렇게 익은 매실 떨어지려는데 빗소리 드물어지고
滿徑苔痕綠上衣,	오솔길 가득했던 이끼 자국에 초록으로 옷이 물들었네.
風急小窓關不及,	바람이 세찬데 작은 창을 미처 닫지 못했더니
落花詩草一齊飛.	낙화의 시 원고가 일제히 날아가 버렸네.

비가 그쳐 잠시 수원 주변을 거닐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책상에 두었던 원고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의 주범은 바람이었다. 바람에 꽃이 떨어져 어디론가 날아가듯 낙화 시도 모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가를 생각할 틈도 없이 날아간 작품 때문에 허탈해하는 심정을 행간에 고스란히 녹여낸 시이다.

이러한 순간을 거듭하며 원매는 무려 82세까지 장수하였는데 여전히 작지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날이 길다(日長)>(권37)는 그의 나이 82세에 지어진 것이다. 제1~4구는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두지 못하고 한밤중까지 시를 짓다가 날이 바뀌면 다시 이른 새벽부터 작시에 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好學’하던 ‘高鳳’²³⁾은 쉽게 따라 해도 ‘回天’하던 ‘魯陽公’²⁴⁾은 될 수 없겠다고 말하였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저무는 태양까지도 되돌렸던 강력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부족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제7구에서 ‘自家憐惜自家喜’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봉처럼 살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해 완전히 만족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겠다.

不忍流年一擲過,	차마 흐르는 세월을 버려둘 수 없어
日長老子更婆娑.	날이 길어지자 노인은 더욱 춤추듯 움직이네.
三更詩尚呼兒寫,	삼경에도 시 때문에 되레 아이를 불러 쓰게 하고
一早奴先把墨磨.	이른 아침엔 하인이 먼저 먹을 잡고 갈고 있네.

23) 《後漢書·逸民傳·高鳳》, “고봉은 자가 문통이고 남양 엽(지금의 하남성 葉縣) 사람이다. 젊어서 서생이어서 집이 농사를 업으로 삼았으나 오로지 글을 읽는데 정진하여 주야로 그치지 않았다. 아내가 밭으로 나가면서 마당에 보리를 햇볕에 말리며 고봉에게 닭이 오지 못하게 하라했다. 이때 하늘에서 폭우가 내렸는데 고봉은 죽간을 들고 책을 외우느라 빗물에 보리가 쓸려가는 것도 몰랐다. 아내가 돌아와 괴이해 하며 물으니 고봉이 그제야 알아챘다. 그 후 고봉은 이름난 학자가 되어 서당산에서 학문을 가르쳤다. …… 고봉은 나이가 들어서도 의지를 다잡고 게을리하지 않아 명성이 알려졌다.(高鳳字文通, 南陽葉人也. 少爲書生, 家以農畝爲業, 而專精誦讀, 晝夜不息, 妻嘗之田, 曝麥於庭, 令鳳護鷄. 時天暴雨, 而鳳持竿誦經, 不覺潦水流麥. 妻還怪問, 鳳方悟之. 其後遂爲名儒, 乃教授業于西唐山中. …… 鳳年老, 執志不倦, 名聲著聞.)” 范曄 저, 진기환 역, 《後漢書》10권, 서울: 명문당, 2019, 148쪽, 원문 참고.

24) 《淮南子·覽冥訓》, “노양공이 한나라와 교전하는데 전쟁이 한창인데 날이 저물자 창을 잡고 휘두르니 해가 거꾸로 세 개 별자리까지 되돌아갔다.(魯陽公與韓搆難, 戰酣日暮, 援戈而搆之, 日爲之反三舍.)” 劉安 저, 이석명 역, 《淮南子》, 서울: 소명출판, 2010, 350쪽, 원문 참고.

好學易飄高鳳麥,	학문을 좋아하여 고봉처럼 보리를 씻겨나가게 하는 것은 쉬웠으나
回天難仗魯陽戈.	해를 되돌리려 노양공처럼 창을 잡기는 어려웠네.
自家憐惜自家喜,	스스로 애석해하다 즐거워하다
白髮光陰得最多.	세월 속에 백발만 최고로 늘었구나.

회재불우로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서글퍼하면서도 원매 삶의 중착지는 늘 수원이었다. 그곳에서 원매는 늘 삶의 지향과 의지를 다잡았고 이를 위해 때때로 자신의 능력 앞에서 겸손을 버렸다. <스스로 비웃다(自嘲)>(권16)에서는 ‘匡時’를 할 만한 뛰어난 인재임을 피력하였다.

自笑匡時好才調,	스스로 웃나니, 시절을 바로잡을 뛰어난 재주꾼을
被天強派作詩人.	하늘이 억지로 시인으로 파견했구나.

그리고 <자재자가 莊經畬에게 노래해주다(子才子歌示莊念農)>(권15)에서는 시인으로서도 세상에 명성을 떨칠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음을 자신하였다.

生如此人不傳後,	이 사람처럼 살고도 후대에 전해지지 않으면
定知此意非穹蒼.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이 아님을 알리라.

이러한 자존감은 시를 사랑하여 매일같이 시와 독서에 매진하며 살았던 일상의 축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비록 현실 부정에서 오는 고독감과 서글픔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원매는 현실회피나 방치가 아니라 모든 무기력한 상황까지 정면으로 마주하며 꿋꿋이 보냈다. 일상은 이런 내적 욕망과 한계의 충돌이 반복되는 곳이며 끊임없이 자기 확인을 하게 되는 곳이었다. 그 시간을 보내면 만들어진 일상의 궤적은 원매가 자기 삶에 가졌던 애착과 독자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노력의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VI. 결론

원매는 사임 이후 본격적으로 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현직 관료로서의 정치 활동이 일단락되면서 그는 자연히 개인적 삶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한 중에 시문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에게 시문 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立身揚名’을 실현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소득 창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여전히 그의 신분은 공익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報國’의 역할을 시문 창작에 맡기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통해 ‘傳名’을 이루고자 소원하였다. 이를 위한 원매의 노력은 다양한 서적과 방대한 작품의 수량으로 가시화되어 정통 시문집에 서부터 《隨園詩話》, 《小倉山房尺牘》, 《隨園食單》, 지괴소설 《子不語》, 수험서 《袁太史稿》, 고증학서 《隨園隨筆》 등이 출판되었다. 특히 《소창산방시집》은 다른 작품과 달리 원매가 스스로 시인임을 자처하고 수십 년을 창작 실천에 할애하면서 점차 자신의 시학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원매는 시가 창작을 하는 중에 겪게 되는 모든 순간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시인으로서 겪는 창작의 고뇌와 열정,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창작 방법, 시인이자 출판업자로 자기 작품을 포함하여 시문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선시, 편집, 출판 등의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는 창작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으며 청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원매에게 시는 삶의 원동력 그 자체였으므로 시가 창작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아 인식을 확립하고 존재적 가치를 높이며 독립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劉安 著, 이석명 역, 《淮南子》, 서울: 소명출판, 2010.
- 리하르트 반 뢰덴 저,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 范曄 著, 진기환 역, 《後漢書》10권, 서울: 명문당, 2019.
- 알랭 로랑 저,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1.
- 袁枚 著, 백광준 역, 《袁枚 산문집》,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 원매 저, 최일의 역, 《袁枚詩選》, 서울: 문이재, 2004.
- 윌리엄 T.로 저, 기세찬 역, 《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 이시바시 다카오 저, 홍성구 역, 《대청제국》, 서울: 휴머니스트, 2009.
- 임병철 저,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인들의 자아와 타자를 찾아서》, 서울: 푸른역사, 2012.
- 張仲禮 著, 김한식 외 역, 《중국의 紳士》, 서울: 신성원, 1993.
- 차주환 저, 《中國詩論》,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최일의 저, 《원매의 시와 시론》, 서울: 신성, 2003.
- 허세욱 저, 《중국 근대 문학사》, 서울: 법문사, 1996.
- 簡有儀 著, 《袁枚研究》, 臺北: 臺北文史哲, 1988.
- 楊鴻烈 著, 《袁枚平傳》,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27.
- 嚴迪昌 著, 《清詩史》,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2.
- 吳宏一 著, 《清代詩學初探》,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6.
- 吳兆路 著, 《性靈派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01.
- 王夫之 等撰, 《清詩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王英志 選注, 《袁枚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
- 王英志 著, 《文彩風流袁枚傳》, 北京: 東方出版社, 2012.
- 王英志 著, 《袁枚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2.
- 王標 著, 《省市知識分子的社會形態》,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8.

- 袁枚 著, 吳言生·高磊 解評, 《袁枚集》, 山西: 三晉出版社, 2008.
- 袁枚 著, 王英志 主編, 《袁枚全集》,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3.
- 袁枚 著, 李夢生 選注, 《袁枚散文選集》,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4.
- 袁枚 著, 李靈年·李澤平 譯註, 《袁枚詩文選譯》, 成都: 巴蜀書局, 1990.
- 袁枚 著, 周本淳 標校, 《小倉山房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袁枚 著, 夏勇 注釋, 《小倉山房尺牘詳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20.
- 袁枚 著, 興華 譯, 《隨園詩話》, 北京: 昆侖出版社, 2002.
- 劉世南 著, 《清詩流派史》, 臺北: 文津出版社印行, 民國84.
- 張健 著, 《袁枚詩新論》, 臺北: 文津出版社, 2012.
- 鄭幸 著, 《袁枚年譜新編》, 上海: 上海世紀出版集團, 2011.
- 周舸岷 選注, 《袁枚詩選》,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9.
- 박준수, 《袁枚 性靈說의 縱橫關係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신병철, 《袁枚의〈子不語〉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신재환, 《〈隨園詩話〉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신재환, 《〈隨園詩話〉에 채록된 清代 시 수용양상 고찰》, 《퇴계학논집》 제32집, 2023.
- 이원규, 《袁枚 詩論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최일의, 《袁枚 詩學理論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최일의, 《袁枚〈續詩品〉의 창작원리론 고찰》, 《중국문학》 제20집, 1992.
- 홍혜진,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 홍혜진, 《18세기 강남도시 문예장과 원매의 글쓰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 홍혜진, 《袁枚의 시가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 고찰》, 《동아시아고대학회》, 제52집, 2018.
- 홍혜진, 《〈藝林品彙〉 연구》, 《중국학보》 제97집, 2021.
- 홍혜진, 《〈小倉山房詩集〉에 나타난 自傳的 통찰 특징 연구》, 《외국학연구》, 제67집, 2024.

- 孔燕妮, 《袁枚詩歌理論與實踐研究》,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 王廣鵬, 〈袁枚의出版經營活動略說〉, 《文教資料》, 2020년 12기. vol.858.
- 王鏡容, 《傳播, 聲譽, 性別-以袁枚《隨園詩話》爲中心的文化研究》, 暨南國際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91.
- 劉興仁, 《袁枚古體詩研究》, 佛光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99.
- 林純禎, 《袁枚詩中‘趣’的研究》, 彰化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92.
- 張麗華, 《論袁枚的性靈散文》, 內蒙古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3.
- 蔣寅, 〈袁枚《隨園詩話》與清詩話寫作之轉型〉, 《嶺南學報》, 復刊號, 2015.
- 車振華, 《論袁枚散文》, 山東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fter resigning, Yuanmei began living in Suwon in earnest and devoted a lot of time to write poems. The ultimate purpose was to realize ‘rising in the world and gaining fame(立身揚名)’ and make his name known to future generations, the other was to make a living through economic income generation. While faithfully fulfilling these practical purposes, he wrote about 4,500 poems in the 《*Xiaocangshanfangshiji* 小倉山房詩集》 37 volumes and 《*Buyi* 補遺》 2 volumes. The collection of poems reflected his life of over 60 years between the ages of 21 and 82. He reflected the whole story of his life as a poet into his work. In particular, after resignation, he greatly emphasized his agony and passion as a poet. He described in detail the pain of creation, how to write a poem, and the publication of poetry based on his experience. He also delicately expressed the daily life of a poet who lived by working on his creation every moment. During these 60 years, he did not give up his

passion for creation and grew into a poet representing the Qing Dynasty. Poetry was the driving force of his life. He established his own self-awareness and increased his existential value,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build an independent world of its own by writing a poem.

Key Words : 원매(Yuanmei), 청조(Qing Dynasty), 《小倉山房詩集》(《*Xiaocangshanfangshiji*》), 수원(Suiyuan), 자아인식(Self-awareness)